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죠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성도여 다 함께(찬29/새29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연구호 장로 2부/오승홍 장로 3부/유형석 집사 4부/강수연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얼마나 아프셨나(작곡 진선미)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17-19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8:1-30:20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10) '절대(absolute)가 바뀝니다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차라르'에 대처하는 두 가지 자세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찬399/새546장)
- VIP 작정(3차) VIP Pledge All together **다같이**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69년전에 완불 했습니다

Full Payment Made 69 Years Ago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동부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삿짐이 미처 도착하지 않아 이불 없이 맨바닥에서 잤다가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겨울이 되면 냉기 도는 실내의 오싹함에 그때의 느낌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행도 가장 날씨가 좋다는 3월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만의 이상 기온으로 여행 내내 추위에 떨며 다녔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동안 가지 못했던 부흥 집회를 비로소 가게 되면서, 지난 주 처음으로 애틀랜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따뜻한 애틀랜타 조차 추웠습니다. 왜 이렇게 추위가 저를 쫓아오는지 좀 따뜻한 게 없나 찾다가 이번에 애틀랜타에서 너무나도 가슴 훈훈해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식사 대접을 해 주셨던 집사님이 자원 봉사하시는 일이었는데, 한국의 라미현(Rami Hyun) 사진작가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22개국의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 선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주었던 군인들을 찾아가 “우리나라를 위한 헌신에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전하며 사진을 건네줄 때마다 다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한결같이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과 자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애틀랜타에 사는 노먼 보드 미 해병대 장진호 참전용사는 사진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라리, 포르세, 람보르기니, 벤틀리 다 타 봤지만, 그중에 제일 기아 텔루 라이드였다’ 그러면서 계속 ‘텔루라이드 최고!’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의 집에 가보니 그 모든 차가 있었고 자기가 타 본 차중에 텔루라이드 만한 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원 봉사하시는 이 집사님은 라미현 사진작가에게서 사진을 파일로 받아 인쇄를 하고 액자에 넣어 참전용사가 모이는 챗터 모임에 가서 전달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참전용사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은 없었다고 하시며, 도리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사진액자를 받으며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나?”라고 묻는데 그때마다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참전 용사의 숨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지불” 하셨기 때문입니다.

I still remember how cold it was when we first moved to California from the East, and we suffered tremendously because we had to sleep on the cold floor without any blankets since our luggage bags were delayed. The cold winter reminds me of those days even now. We recently visited Israel because it is well-known that March is the best time to visit with beautiful warm weather. But to our surprise, it was so cold with such abnormal temperatures that happens only once in a 100 years.

Last week, I had a chance to lead a Revival servic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orona pandemic, and I visited the city of Atlanta with expectation of a nice and warm weather. But to my disappointment, it was cold even in Atlanta. While I was seeking for a warm and cozy thoughts, I came across a very warming story while in Atlanta. And it was a story of a volunteering episode by a deacon who offered a meal. The volunteer work involved seeking out and visiting the Korean War (6.25) veterans from some 22 countries who were on the pictures taken by a famous Korean photographer named Rami Hyun. Whenever he meets those veterans, he offered the framed pictures as a gift and shared, “thank you for your service and dedication for risking your life to save our country.” And each time, the pictures were gifted with heart filled gratitude, they all shared tears and could not hide their love and pride for Korea. One veteran who lives in Atlanta named Norman Board, U.S. Marine stationed in Chosin Reservoir (Changjin-ho) stated, “I drove a Ferrari, Porsche, Lamborghini, and Bentley, but The BEST car is Kia Telluride...” and he continued to exclaim, “Telluride is the Best of the BEST!” At first, he thought it was just a nice gesture. But when he visited Mr. Board’s house, he could not believe that he actually owned all those cars, and revealed that from all the cars he drove, no car can outperform Telluride. So the volunteering deacon continued to share whenever he gets a download of the pictures of Rami Hyun, he would print out and frame the pictures of the veterans. He then visits various Veteran Chapters with children to express the gratitude for their service to our country. And every time, a warm heart is all around not ashamed of expressing that safe-guarding Korea and preserving the lives of Korean people was the most worthy cause. And then they are the ones grateful for remembering them with the special framed pictures. And many of them even asked, “How much is this picture?” And each time, the answer is the same, that “the payment was already made 69 years ago.” A book was written with a vision to record the history after listening to so many hidden stories of those brave Korean War veterans, and the book is entitled, <The Payment Made 69 Years Ago>.

The week of Christ’s suffe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we should remember the real reason why we are here today, that is because Jesus already “made the payment in full some 2000 years ago.”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10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절대(absolute)'가 바뀝니다

(마 5:17-19)

1. 성경을 지금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몇 번 통독 할 수 있을까요?

2.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당시 청중들에게 참신하고 혁명적이었는지, 성경의 권위를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까?(17절, 참고/ 막 1:27, 암 8:11-12)

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쿨란의 '사해사본(the dead sea scroll)'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바를 나누어 보십시오.(참고/ 딤후 3:16-17)

4.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뜻은 예수님이 그 말씀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구절을 읽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참고/ 눅 24:27, 출 21:23-25)

5.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 말씀합니까?(19절)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누구입니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성지 순례 특집

십자가의 길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다녀온 김성지입니다. 제 이름 성지(聖地)와 뜻은 다르지만,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거룩한 땅, 성지(聖地)를 직접 보고 밟고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번 성지답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곳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고 또 여러 추정으로 거론되던 다른 장소들과 달리 예수님이 직접 건너셨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오래전 암이 재발했을 때, 13시간의 긴 수술을 앞두고 어린 딸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예수님께 내 마음에 요동치는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사소한 일과 작은 스케줄 변경에도 밤잠을 설치기 일췌인 제가 그날 밤은 놀랍게도 아침까지 폭 자는 경험을 했습니다. 큐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경험의 장소인 갈릴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나와 늘 함께하는 주님의 동행을 느끼는 진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 아이의 신앙회복을 위해 요일 5:14-15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이스라엘 땅을 밟을 그날 또한 고대합니다.

김성지 집사

이른 아침 찬 공기를 가르며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는 잘 다듬어진 돌길이지만, 주님 십자가 지셨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험하고도 거친 자갈길이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운 곳,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곳을 지나며,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언덕의 바위 위, 사각으로 다듬어 새겨진 구멍에 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슴 깊이 뜨거운 물결함이 느껴집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이곳,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의 무거운 죄를 담당하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니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중략)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중략)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음속으로 찬송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깊이 깊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조관휘 장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난 10여 일 동안 은혜롭고 경이로운 순례의 길을 경험했습니다. 듣고, 읽기만 했던 성경 말씀의 한 장면 장면들을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놀라운 은혜로 다가가 북받치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의 한 가운데에서도 세찬 물줄기와 그늘로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광대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셨던 예

갈릴리 배위에서



갈릴리 바닷가



팔복교회



쿠파란 동굴 앞



수님의 체취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은 손끝의 전율들!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범벅되었을 십자가의 흔적이 고스란히 베여있는 비아돌로로사의 슬픔과 애痛的 잔흔들. 가슴의 멍멍함과 그리움이 밀려오면서 이 모든 고난과 공생애의 흔적들은,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신 우리들을 위한 희생이었음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순례의 여정은 나에게도 장사한 후 3일간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뵈었고,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재회를 기대합니다. 나를 성서의 땅으로 부르신 이가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 내게로 찾아오실 것임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지은 집사

교육부- 성경 암송 대회

머리엔 쑥쑥, 마음엔 새싹 키워



학창 시절,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던 터라, 처음에는 아이도 저처럼 싫어할까봐 말씀 암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에서 매주 암송을 숙제로 하고 있으니, 교회학교 암송까지 시키면 힘들어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가 정말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쉽게 말씀을 외우는 모습을



곽소이 집사

보면서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QT를 하고 Daily Bible로 성경을 읽고, 매주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쑥쑥 자라나고 있음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아이가 말씀을 암송하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주님 말씀을 읊조리는 주님의 딸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년부에서는 매주 주보에 실리는 성경구절을 한꺼번에 외워, 두 달에 한 번씩 성경 암송 대회(Bible Memory Contest)를 합니다.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두 달치 분량을 한꺼번에 암송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벅

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는 예배를 드린 후, 바로 그날의 말씀을 암송했었는데,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후 저도 바빠서 챙기지 못했더니 지난달 콘테스트에서는 한 달 치 분량을 암송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당혹스러웠는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외웠지만, 한꺼번에 외우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지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면 이번엔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도 끝까지 말씀암송을 하는 모습이 기뻐합니다. 한 구절씩 매주 외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아이가 그 후부터는 제가 미리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매주 성경암송을 합니다. 지금은 습관처럼 암송하는 말씀 구절이지만, 이 말씀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앞으로 살아가며 만나게 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김재신 집사

교육부-제자 훈련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기

선생님 1명과 학생 2명이 한 반이 되어, God's Sovereignty, Predestination, 십자가의 의미 등 전체 10강으로 진행되는 제자 훈련 2단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이기에 성경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른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문도 생길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우정 집사(교사)

이번 BYM 중등부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

니다. 또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을 공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저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해주시길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남은 제자훈련을 기대합니다.

Corban Sohn(5학년)

교회에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믿음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한다는 생각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성경 암송 정도 하는 쉬운 것일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제자훈련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닌, 제겐 큰 도전이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 예정론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던 제자훈련을 통해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행동, 언어 등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실 말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확인하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Isaac Sohn(BYM, 9학년)



의무실 사역

내 영혼 살린 의무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던 한국을 떠나, 아이들을 데리고 삶의 뿌리를 남의 나라에 옮겨심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온 미국에서, 정작 삶은 더욱더 팍팍해져 믿음마저 가뭄에 논바닥 같라지듯 메말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의무실 사역을 하고 싶어 가정주부 25년 차에 한국에서 취득한 장롱 면허를 다시 미국 간호사 면허에 도전하여 라이선스를 얻었고, 그 후 임마누엘, MIT, VBS, 전교인 체육대회, 의무실 봉사 등 의무실 사역을 하게 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1박 2일 시니어 여행 시 어르신들이 안전을 도왔으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는 동역하는 베델의 간호사들을 보내주셔서, 무사히 모든 행사를 마쳤던 때가 가장 감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몇 년 전 새 가족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하기로 하시고 아이가 손가락을 다치게 되어 못 오셨는데 그 아이 치료 후, 너무나 감사해 우시면서 예배에 꼭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지, 모든 것이 은혜며 이 일을 통해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숙 권사



저희 의무실 봉사자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도중 성도님에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위해 여러 분야의 의료진(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대기하며 섬기고 있는 의료 사역팀입니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정신을 잃고 갑자기 쓰러지신 연세 많으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간호사 권사님

이 이미 응급조치를 취하신 후, 구급차를 불러 놓고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았으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고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해서 구급차로 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가 높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언제 갑자기 쓰러지실지, 혹시나 다치지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의무실을 찾아 위험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저희 의료 사역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현선 집사



큐티인 간증(5)

예수님~ 스위치 ON

저는 큐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지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큐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일매일 하는게 잘 안되서 힘든 생각만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기분이 먼저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들어요. 자기전에 유령이 나타날 것 같아서 불끄는 게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 바람부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지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읽고 나서는 기도부터 먼저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에 안심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무섭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

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래요.

김주하(K-1)

(창세기 23장 1절 - 20절) 친인척 없는 고향을 떠나온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였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마추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보게 될 나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땅이구나 라며 22년 전, LAX 공항에 첫 발을 내딛 때 생각이 납니다. 이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그네의 여정을 가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나의 생을 함께할 동반자이

습에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내며 최선을 다한 성의의 대가를 치르고, 약속의 땅에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 피의 대가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적용: 나를 위해 지불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일이 많아 늦게까지 수고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랑의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도제목: ① 어디에 거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②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의 대가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보미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박성권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베델 콰이어 단원 모집



VIP 3차 작성

베델교회에서 주일마다 가장 먼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베델콰이어 멤버들입니다. 진심으로 멤버들에게 감사한 것은 새벽에 일어나 찬양해야 하는 힘든 조건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멤버들을 맞이하려고 일찍 가지만, 아쉽게도 1등으로 들어간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베델콰이어는 젊은 분들부터 80세가 넘으신 권사님, 장로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연령의 다양함이 세대 간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열심"과 "다양성"이 넘치는 베델콰이어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일 1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베델콰이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년간 pandemic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저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 말씀, 주님이라는 밭줄임을!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잘못된 밭줄을, 언제 끊어질 줄 모르는 썩은 밭줄을 잡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일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구원의 밭줄을 건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 중 VIP 3차 작정을 통해 그 동안 망설이셨던 사랑하는 분들을 새생명 축제에 꼭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4월 17일 부활 주일에 저희가 알고 있는 주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 연습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매주일 오전 6시
- ▶ 문의: 김형직 목사 (909)964-2537
김근수 장로 (714) 292-8182

- ▶ VIP 3차 작성: 4월 3일 주일 1, 2, 3부 예배 시
- ▶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월)	4/10: ①부-윤영걸	②부-윤주원	③부-이강오	④부-김도윤
	4/17: ①부-이강훈	②부-이광수	③부-이국선	④부-김수빈
	4/24: ①부-이대은	②부-이범석	③부-이상원	④부-김에스터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4월) | 4/9: 김진환 4/16: 김태원 4/23: 김태윤 4/30: 김현욱

강단꽃(4월) | 4/3: 김정윤, 양석주, 최하자 4/10: 선상균 4/17: 노성애, 김성균, 조미리 4/24: 강문구, 김동심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마 준(한의학), 간호사-이혜경 다음주 |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홍정희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애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베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슬기로운 예배 방역 지침

아직 코로나 팬데믹 중입니다. COVID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와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와 모임 중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 제직회

이번 주 토요일(9일)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정기 제직회가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제직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새생명 축제(D-14)

4월 17일 부활 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VIP 작성 카드는 언제든지 작성하셔서 VIP 작성함에 제출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주차 Drill Sunday

다음 주 4월 10일(주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본교회 파킹랏을 비우는 'Drill Sunday'로 지킵니다. 이 날은 모든 차량(퍼밋 차량 포함)을 비전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셔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비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에 한해 당일 무료 커피 쿠폰을 나누어 드립니다.

◆ 세례/입교 및 유아세례

본당 앞 부스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세례/입교)

4월 10일(주일) 2부 예배 시, 만 12세 이상

- 교육/문답: 4월 9일(토) 오후 1시, 컨퍼런스룸(본당 2층)
- BYM 세례/입교 교육: 4월 9일(토) 오후 2시, 비전 채플

문의: 현호승 전도사 (949)677-4911

(유아세례)

4월 10일(주일) 3부 예배 시, 24개월 이하(부모 중 적어도 한 분이 세례/입교 교인)

- 교육/문답: 4월 9일(토) 오후 3시, 컨퍼런스룸(본당 2층)

문의: 최규덕 장로 (949)838-4445,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2022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무릎으로 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집회는 '십자가로 더 깊이(QTin to the Cross)'라는 주제 아래 QTin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묵상하며, 특별히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여정을 영상으로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장소: 4월 11일(월)-15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4월 15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콰이어의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 유년부 예배 장소 변경

유년부 예배실 수리로 인해 이번 주일(4월 3일)은 초등부 예배실(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 합니다.

◆ 특별 프로그램 "걸어서 베델 속으로"

새롭게 시작된 목요 프로젝트 "걸어서 베델 속으로: 본격 사역체험 프로그램" 4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베델 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헌의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동안 궁금했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예살 청1 수양회

예살 청1 수양회가 "The One"이라는 주제로 드러집니다. 예살의 청년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다음 세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4월 7일(금)-10일(주일), 갈릴리 수양관

문의: 공병주 전도사 (213)660-9477

◆ 교회학교 VIP 작성 카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자녀들도 전도하고자 VIP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작성 카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 보내드린 링크를 통하여 작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각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2022 VBS 등록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Zoomerang: Returning to the Value of Life"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자녀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VBS 기간)

- 영유아: 6월 7일(화)-6월 10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K-5: 6월 14일(화)-6월 18일(토) 오후 1시-오후 6시 30분

일반 등록 기간: 4월 10일까지

일반 등록 금액: 영유아 \$65, K-5 \$75

◆ 영어 QTin 4월호 판매 안내

큐티인 장년 영어 4월호를 교회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영어 큐티인 4월호는 (새책, 어린이, 청소년) 각 부서에서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단꽃 봉헌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실 강대상 꽃을 각 가정의 감사 혹은 추모로 봉헌하실 성도님의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성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행정실 (949)854-4010

◆ 위로해 주세요

故 정금순 님(조관희 장로의 장모, 조화자 권사의 모친)께서 3월 24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오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e "Absolute" changes(anything/everything) (Matthew 5:17-19)

1. If you start reading the Bible from now on, how many times can you read it through before you come to the Lord?
2. Jesu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as novel and revolutionary for the audience at the time. When there was a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authority of the Bible, how did the Lord decisively make it clear? (V 17, Ref/ Mark 1:27, Amos 8:11-12)
3. Do you believe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Share what you felt when you heard the story of the 'Dead Sea Scrolls' at the Qumran Caves. (Ref/ 2 Timothy 3:16-17)
4.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stroke of a pen, will by any means disappear from the la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means that Jesus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share how Jesus' life fulfills the law. (Ref/ Luke 24:27, Exodus 21:23-25)
5. Who would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V 19) Who is the real game changer? Pray for one another with many blessings.

Apply to Life

